

역경에 관한 욕기의 영성교육적 전망

- 인간의 온전성과 역경의 가치 필연성 -

이 명 기

가톨릭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역경과 인간’을 다루는 욕기를 중심으로 역경의 영성교육적 전망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욕기 안에서 역경으로 인한 개인의 성격변화와 인간의 ‘온전성’의 관계를 탐구한 결과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인간의 ‘온전성’은 역경에 의해 짓눌리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둘째, 역경은 한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 영향을 주고받는 삶의 일부이다. 이러한 탐구 결과 인간의 ‘온전성’과 역경의 가치 필연성에 관한 영성교육적 전망은 다음 세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역경은 초대이다. 역경을 지탱하는 신앙심은 본래 하느님이 인간 안에 심어놓은 씨앗이기에 천성 안에 있는 것이고, 역경이 올 때마다 인간의 영성은 깊어진다. 이를 볼 때 영성교육자들은 특히, 어린나이의 피교육자들을 교육할 때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수련시켜야 한다. 둘째, 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이다. 영성의 그 깊이는 공동체 삶에서 드러난다. 자신의 역경과 위기를 견뎌내는 훈련 자체가 이웃의 역경과 위기를 함께 견뎌주는 열매로 맺어지는 것, 이것이 공동선이다. 셋째, 종교영성이 지향하는 것이 각 개인의 영성훈련이라면, 개인에게 역경이 올 때 이를 변화와 영적 성숙의 기회,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안내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의 영성교육이 학생들에게 줄 희망은 이것이다. 우리가 겪는 역경은 우리를 찌그러트리거나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며,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다리가 되고, 우리를 그분의 사람이 되게 한다.

핵심주제어: 온전성, 역경의 가치 필연성, 신앙, 영성교육, 극복, 공동체

I. 서론

모든 인간은 하느님 모상성의 원리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온전성’¹⁾을 향해 초대된다. 우리 모두는 삶의 역경 속에서 어둠을 만나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역경을 통해 빛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는 자신을 비롯하여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람 안에 있는 ‘온전성’에 대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그리스도교 영성교육의 지향이기도 하다. 특히 성경 이야기는 각각 다른 인간의 인생 전 과정을 담는다. 역사적 배경과 문화와 인품은 다르지만, 그들에게는 삶의 역경과 극복 그리고 재탄생에 관해 논할 때 역경 한가운데서 믿음을 놓지 않고 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여 하느님께 나아간 공통점이 있다. 성경 이야기를 접하고 듣는 것으로도 정서의 함양, 마음속의 폭력성과 경쟁심을 정화하는 기회가 된다. 또 성경 속 인물의 여정을 통해 인간의 길이 끊임없는 성장을 향한 여정임을 알 수 있고, “인간성숙의 끝은 어디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이 논문은 역경을 다루는 가장 적합한 경전으로 욥기를 선택하며, 이 경전을 통해 삶에 찾아오는 역경이 역경으로만 끝나지 않고 인간 안에 숨은 ‘온전성’을 찾아내어 영적 성숙으로 향하게 하는 그 필연적 가치를 논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논문은 인성, 영성의 교육현장에서 소통하는 대학생들의 깊은 고뇌로부터 끌어올린 교육적 필요를 담고 있다. 곧 소수의 능력자를 선택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현상이 학교와 사회 안에 여전히 팽배한 가운데, 대학생들은 입시경쟁을 뚫고 달릴 때보다 더 처절하게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취업경쟁을 뚫고 달려야 하는 중압감에 시달리며, 정신과 영혼이 메말라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학생들 안에 거하는 하느님의 영성을 경작(교육)해야 할 필요에 의해,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온전성’을 회복하는 데 적합한 모범으로 욥기 본문 안에서 주인공 욥의 여정을 추적해나감으로써 삶의 역경 안에 속속들이 숨은 가치관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성찰

1) 이 논문에서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인 「욥기의 *tāmām* 연구」에서 우리말로 ‘온전성’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어근 ‘타맘’(*tāmām*)의 어휘연구를 참조한다. ‘타맘’은 본디 ‘완성되다’, ‘온전해지다’라는 뜻이다(B. Kedar-Kopfstein, “*tāmām*”, ThWAT 8, p. 689). 이 어근에서 파생된 어휘들은 구약성경에서 ‘흠이 없음’ 또는 ‘온전성’의 개념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런데 ‘온전성’의 의미는 이 어휘가 적용되는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다. 가령 신체와 관련하여 인간 몸의 ‘성함’(이사 1,6; 시편 38,4,8; 판관 20,48) 또는 ‘건강함’(시편 73,4)으로 쓰인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인 경우는 하느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의 ‘흠이 없음’(레위 1,3,10; 22,18-21)이다. (K. Koch, “*tāmām*”, *TLOT* 3, p. 1426).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완전(完全)함’은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을 가리키고, ‘온전(穩全)함’은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함’을 가리킨다(『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 대사전』 중, 4516, 4554쪽 참조).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타맘’은 ‘양적’ 완전함의 의미보다 ‘질적’ 완전함, 곧 ‘본바탕이 고스란하다’ 또는 ‘흠이 없이 바르다’, ‘옳다’(성하다)라는 뉘앙스를 띤다(이명기, 「욥기의 *tāmām*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12쪽).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손상되거나 변질됨이 없이 ‘본디 고스란하다’라는 뜻으로 우리말 ‘온전성’을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하고, 그 결과 오늘의 교육현실에 비추어 역경을 통한 영성교육적 전망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 논문의 주제인 역경에 관한 욥기의 교육적 전망이나 부제로서 인간의 ‘온전성’과 역경의 가치 필연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소개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욥기 경전을 통해 인간의 영적 회복탄력성을 관찰한 사회복지관점의 연구논문²⁾과, 이 논문이 욥기의 영성교육적 전망을 도출하는 데 참고한 영성교육학에 관한 논문이 있다.³⁾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인 히브리어 ‘타맘’(*tāmām*) 곧 ‘온전성’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인간의 ‘온전성’과 역경의 가치 필연성을 관련지어 연구를 새롭게 확장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가톨릭교회의 전통적 성경주석 방법 가운데 하나인 영적 독서(Lectio Divina) 방법론에 비추어 독서를 시도하고자 한다. 가톨릭교회의 영성가 C. M. 마르띠니가 욥기를 읽는 방식에 따르면 “모든 것을 지성의 힘으로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신비에 복종하는 것이기에 ‘정감적’이라 부르는 자세를 취한다. ... 물론 추론도 필요하고 신학과 사목도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마지막 직관이다.”⁴⁾ 교부들의 시대, 특히 수도원을 중심으로 사용된 영적 독서 방법에서는 성경 주석의 객체와 주체 사이에 일종의 화학적 반응이 생겨난다. 그 까닭은 한편으로는 주석하는 이의 빛에 의해 밝게 빛나는 것이 본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본문이 그에게 발산하는 빛으로 밝게 빛나는 것이 주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⁵⁾ 이러한 정감적 독서방법에서는 역경에 처한 이들이 욥기를 읽기만 해도 마음이 정화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한다.

욥기는 산문과 운문으로 결합된 문학작품인데, 두 문체 사이에서 주인공 욥의 성격도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산문에서 욥은 원만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나, 재앙이 붙어 닥쳐 일순간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는다. 망연자실한 상황임에도 그는 신앙을 유지하며 고통을 인내로써 받아들인다. 반면, 운문에서 욥은 고통의 현실을 거부하고 불평하며 반항한다. 심지어 하느님의 공의(심판)를 의심하고 상상으로나마 하느님을 재판관이자 피고인으로 법정에 소환할 만큼 격한 성격을 드러낸다. 인간이 역경에 처하면 자연스럽게 닥친 자신을 만나는데, 이는 순경 중에 아직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다. 욥은 역경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듯 역경으로 인해 인간 성격의 불일치가 나타남에도, 욥기 산문과 운문에서는 동일하게 욥의 ‘온전성’을 강조한다.

2) 하정미, 최중화, 송영지, 「자살생각으로 고통 받는 사람의 영적 레질리언스 : 사회복지실천적 관점에서 욥기 내용분석」, 『교회사회사업』, 제20호 (전북: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2012).

3) 고요한, 「가르침과 배움에서 영성형성의 의미와 방법에 관한 교육인간학적 고찰」, 『교육철학연구』, 제33권, 제3호 (경기: 한국교육철학학회, 2011). 양유승, 「‘진리의 공동체’ 실현을 위한 영성교육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4) C. M. Martini, *La Forza Della Debolezza*, 안소근, 『약함의 힘, 시련의 때에 드리는 믿음의 응답 욥기 묵상』 (서울: 성서와 함께, 2013), 194쪽.

5) H. Simian Yofre, *Metodologia dell'Antico Testamento*, 박요한 영식, 『구약성서 연구방법론』 (서울: 성서와 함께, 2000), 325-326쪽.

그렇다면 역경으로 인해 기본성격이 무너지고 정반대로 돌변하여, 혼돈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는 천연의 모습에서 인간의 ‘온전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쟁점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욥기 안에서 역경 중에 일어나는 인간 성격의 변화와 인간의 ‘온전성’의 관계를 탐구하고, 그에 비추어 역경의 가치 필연성을 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오늘날 역경의 한복판에 서 있는 또 다른 욥들이 공감하고 도움을 받을 역경의 영성교육적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역경은 성숙을 위한 통과의례인가?

욥에게 닥친 역경은 인간사에서 가히 ‘재난’이라 할 만한 모든 재난에 해당한다. 곧 적들의 공격(욥 1,15)에서는 전쟁을, 전 재산과 인적 자원을 잃는 사건(욥 1,16-17)에서는 궁핍을, 자녀들을 모두 잃은 일(욥 1,19)에서는 사별을, 그리고 동방인들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온몸의 종기를 긁으며 쓰레기장에 앉아 있는 모습(욥 2,7-8)에서는 굴욕을 그려낸다.⁶⁾ 혹자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이겨낼 교훈을 주려는 목적으로 욥이라는 가상 인물과 가상의 재난을 설정한 것으로 설명한다. 혹자는 착하고 무고한 사람에게도 역경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재난을 과장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구뮈에레스의 표현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 역시 우리를 읽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점에서,⁷⁾ 이는 인간사 안에서 역경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는 의도일 수 있다.

1. 역경과 도덕적 성격

삶에서 연속적으로 큰 불행이 닥치는 경우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인간은 과연 얼마나 내일을 내다보며 살 수 있을까? 산문에서 욥이 보이는 태도는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서 보는 공통점으로서 삶의 끈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성실한 태도이다. 평생 종교적 신념으로 성격이 형성된 욥은 비록 불가해한 재앙을 당하지만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당연했다.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은 데다 악성 피부종양까지 얻게 된 욥은 당대의 관습대로 집밖으로 쫓겨나 쓰레기장에서 지낸다. 진물 나고 가려운 피부를 질그릇 조각으로 문지르는 신세가 되었어도(욥 2,8), “하느님을 욕하고 죽으라.”(욥 2,9)는 아내의 도발적 언사를 넘어 도리어 그녀를 조용히 타이른다(욥 2,10). 욥의 세 친구가 멀리서부터 그의 모습을 보고 기염을 토하며 제 옷들을 찢고 머리에 재를 엮고 요란한 의식을 치

6) D. Atkinson, *The Message of Job: Suffering and Grace* (BST; Illinois, 1991), p. 23.

7) Gustavo Gutiérrez, *Hablar De Dios Desde El Sufrimiento Del Inocente*, 김수복, 성찬성, 『욥에 관하여, 하느님 이야기와 무죄한 이들의 고통』 (대구: 분도출판사, 1996). 24-25쪽.

를 때도 조용히, 그리고 그들이 자신과 7일 동안 함께 있을 때도 침묵으로 견딜 수 있는 성격이었다.

성경지혜의 세계에서 성격은 곧 도덕적 성격의 형성을 뜻한다.⁸⁾ 도덕적 성격이란 침묵과 능변과 시의적절한 통교방식과 겸손 등 네 가지 특성으로 갖추진다.⁹⁾ 무엇보다 이 세계에서 도덕적 인간은 철저히 덕을 수행하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과, 하느님의 선물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기에 끊임없이 하느님께 의존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늘 긴장을 겪는다. 이러한 배경에는 “선행을 하면 상을 주고 악행을 저지르면 벌을 내리는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종교 신심이 크게 자리한다. 따라서 산문에서 욥이 역경을 통과하는 힘은 도덕적 성격이다. 현인들은 자신들의 고결한 행위로 부와 재산, 자손과 영예를 얻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하느님의 보상이라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세상의 질서를 지탱하고 혼돈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들은 세상을 항상 위험한 상태로 보았고,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위험에 빠트리는 ‘어리석은 자’(악인)들과 끊임없이 투쟁하며, 세상에서 가장 해악을 입기 쉬운 연약한 학생들(자녀들)에게 자신들이 철저히 살아온 현인으로서의 세계관을 따르도록 열정적으로 촉구하였다.¹⁰⁾

2. 역경 중의 성격 변화

욥은 삶의 순경 중에 지녀온 낙관적 태도를 벗었다 하더라도, 이후 일어나는 그의 내면의 역동은 그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 것이다. 여기서는 욥이 새로운 의식을 드러내는 욥기 3장과 9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운문이 시작되는 3장에서 욥은 찬미하는 자에서 저주하는 자로 돌변한다.

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내가 태어난 날, “사내아이를 배었네!” 하고 말하던 밤!
그날은 차라리 암흑이 되어 버려 위에서 하느님께서 찾지 않으시고 빛이 밝혀
주지도 말았으면.
어둠과 암흑이 그날을 차지하여 구름이 그 위로 내려앉고 일식이 그날을
소스라치게 하였으면.
그 밤은 흑암이 잡아채어 한 해 어느 날에도 끼이지 말고 달수에도 들지
말았으면(욥 3,3-6).¹¹⁾

8) W. P. Brown, *Character in Crisis: A fresh Approach to the Wisdom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1996), pp. 1-21.

9) J. L. Crenshaw, *Education in Ancient Israel: Across the Deadening Silence*, 박영식, 『이스라엘의 교육』 (서울: 성서와 함께, 2008), 82쪽.

10) J. L. Crenshaw, 위의 책, 83쪽.

11) 가톨릭 구약성경 『욥기』에서 인용.

욥이 태어난 날은 그가 처음 빛을 본 날이다. 그런데 욥은 창세 1,3-5에 나오는 태초의 빛에 대한 하느님 말씀을 반복하는 말로 그날을 저주한다. 그리고 이 저주는 욥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보다 더 근원적 시간인, 그가 모태에서 창조되던 순간의 시간으로 옮겨간다. 마지막으로 욥은 그분이 자신을 그러한 처지로 보내버리지 않고 어찌하여 자신에게 빛을 주고 생명을 주어서 지금, 한때는 기막힌 환희를 경험했던 자신의 몸이 극심한 고통의 터전이 되었을까 하고 탄식한다(욥 3,20-26).

욥은 죽음과 아주 멀리 떨어져 일상 속에 파묻혀 살 때는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생명과 죽음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체계적으로 상상한다. 역경으로 인해 버티고 설 기반조차 흔들리는 이의 의식이, 이토록 우주적으로 또 자유롭게 뻗어나가며 절정에 닿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가 현실세계에서 사회적 역할에 몰두해 있다면 이러한 영혼의 통찰이 가능할 것인가? 하지만 못 사람들에게 욥의 독백은 환자가 통증 때문에 짜증을 내고 신세한탄을 하며 신을 거역하는 불신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친구들은 욥에게 동정과 연민의 마음(욥 2,11-13)을 품으면서도, 성격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욥을 본다. 그래서 친구들은 오직 욥을 선도하려는 책임감으로 그에게 회개하고 구제받을 희망만을 제시한다. 그러나 친구들 이야기 수면 아래에는 “고통의 직접적 원인은 너에게 있지 않느냐?”는 암시가 깔려있다. 한편으로 친구들의 윤리적 판단과 단죄, 다른 한편으로 하느님의 침묵과 부재가 한꺼번에 그를 압박하는 가운데 욥의 성격은 한층 더 거칠어진다.¹²⁾ 이는 욥기 9,20-22에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내가 올바르다 해도 내 입이 나를 단죄하고
내가 온전하다 해도 그가 나를 그릇되다 할 것이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내 목숨에 관심이 없다. 내 생명을 멸시한다.
이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내 말인즉,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나 사악한 사람이나 모두 멸하신다.¹³⁾

욥은 자신이 온전한 사람인데, 모두가 자기더러 온전하지 않다고 정죄하므로, 자신도 스스로 정죄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인다. 하지만 그런 처지에서 자기 단죄는 맹목적이며 하느님 앞에 진실하게 승복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그냥 미신적인 힘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욥은 한편으로는 “온전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 목숨에 관심이 없다.”, “내 생명을 멸시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논리에는 맞지 않지만 그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진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¹⁴⁾ 그러나 욥의 친구들에 따르면 악인들이나 자신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희망 없는 사람처럼 처

12) D. J. A. Clines, *Job 1-20* (WBC 17; Dallas, 1989), p. 225.

13) 사역, 이명기, 앞의 책, 106-107쪽에서 인용.

14) D. J. A. Clines, 위의 책, p. 236.

신해서는 안 된다(욥 4,6). 그들은 “하느님께서 온전한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시므로,” 생명을 거부하는 일은 “하느님이 손을 떼버리실 악인들”(욥 8,20)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훈계하였다.¹⁵⁾ 욥도 하느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진리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자신의 ‘온전성’에 관해 추호의 의심이 없으므로, 상투적 격언을 끄집어내기보다 하느님이 몸소 의인(자신)을 악인처럼 다루는 그의 특수한 경험을 이야기한다.¹⁶⁾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하느님과 욥 사이의 투쟁은 가당치 않으니, 인간에게는 오직 순종만이 살 길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욥은 순종의 길 아니면 반역의 길이 아니라 제3의 길을 찾는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욥의 불평을 사색하노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일어난다. 욥의 부정적 탄식에서 과연 산문 머리말에 나타난 욥의 신실하고 온전한 성격을 찾아볼 수 있을까? 욥은 죽을 병을 앓아가며 여전히 하느님을 찬미할 것인가, 차라리 하느님을 실컷 욕하고 저주받아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욥 2,9)라고 했던 아내의 도발적 제안에 자극을 받아 뒤늦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인가? 욥이 사탄의 말대로 비록 하느님 면전(욥 1,11; 2,5)에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분을 저주하는 것인가? 그러나 이 모든 질문을 바탕으로 명료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다. 곧 욥이 걸어 들어가는 제3의 길이란 어둠의 길이다. 이 길에서 욥은 그동안 자기에게 흠족한 하느님, 자신이 설정한 하느님, 전통 안에서 습득된 하느님 또는 학습을 통하여 알게 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에게 붙어 닥친 역경이란 매개체를 통해 살아 있는 하느님을 만나고 있다. 생을 찬미하던 사람이 생을 저주하는 것처럼 성격이 변해버린 사람에게 하느님도 역시 반전의 하느님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3. 역경 중의 인간과 공동체

아이러니컬하게도, 욥기에서는 욥의 착하고 온전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역경이 붙어 닥치는 것으로 상황이 설정되며, 사탄¹⁷⁾이라는 비현실적 존재가 매개체 구실을 한다. 곧 사탄은 “인간이 과연 하느님께 사심 없이 그 신실함을 바치는 게 가능하거나 할까?” 하고 탄죽을 걸고 인간의 착함이나 ‘온전성’ 속을 파고 들어가 반드시 이를 파괴하는 게 본질이다. 또 다른 아이러니는 욥의 친구들이다. 그들은 사회에서 현인으로 존경받

15) H. H. Rowley, *The Book of Job* (NCB; Grand Rapids, 1983), p. 80.

16) L. O. Caesar, *Character in Job* (Ann Arbor, 1991), pp. 30-31.

17) 사탄(*satan*)은 우리말로 ‘적’, ‘고발자’, ‘반대자’라는 뜻이다. 구약성경에서 사탄이라는 말은 두 가지 면으로 쓰인다. 하나는 왕권을 타도하는 데 골몰하는 정치적 반대자의 활동에 쓰인다(2사무 19,23; 1열왕 5,18; 11,4; 23,5). 사탄이라는 명칭이 악의 세력으로서 하느님 통치에 반대하는 자로 인격화한 본문은 오로지 2역대 21,1 뿐이다. 거기서 이 이름은 정관사 없이 쓰인다. 다른 하나는 법정에서 상대방을 죄인으로 지목하는 검찰관을 언급할 때 쓰인다(시편 109,6; 즈카 3,1-2). J. E. Hartely, *The Book of Job* (Grand Rapids, 1988), p. 72.

는 인물이며, 불행에 휩싸인 친구를 위로하러 멀리서 달려왔고, 고통 받는 이와 함께 하는 공동체적 인물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욥의 불평과 하느님을 향한 불경한 언사와 반항에 충격을 받고, 자신들이 마치 ‘사탄의 변호인’이라도 된 듯 서로 돌아가며 욥을 훈계한다. 이번에 욥은 공동체 차원에서 시험에 드는 것이다.

친구들 가운데 연장자인 엘리파즈가 먼저 연설한다. 그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진 욥의 탁월한 성격을 인정해주는 듯 말을 시작하지만, 이미 욥의 독설(3장)을 들은 터라 욥에게 해줄 훈계를 마음속에 잔뜩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보게, 자네는 많은 이를 타이르고 맥 풀린 손들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자네의 말은 비틀거리는 이를 일으켜 세웠고 또 자네는 꺾인 무릎에 힘을
 돋우어 주기도 하였지.
 그런데 불행이 들이닥치자 자네가 기운을 잃고 불운과 맞부닥치자 질겁을 하는군.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자네가 믿는 바 아닌가? 흠 없는 삶이야말로
 자네가 바라는 바 아닌가?(욥 4,3-6).¹⁸⁾

엘리파즈는 일단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지는 담론을 들으면, 그는 불행과 재앙을 겪는 죄인들에 관해 거침없이 비난하며, “미련하고 우둔한 자가 반드시 고통당한다.”(욥 5,2-5)고 말함으로써 현재 고통당하는 욥을 온전하지 않은 사람처럼 간주한다.¹⁹⁾ 엘리파즈는 무조건 하느님을 방어함으로써, 하느님이 욥의 필사적 외침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무자비한 분으로 소개하는 셈이다. 그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욥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하느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엘리파즈 다음으로 욥을 훈계하러 나선 빌닷은 오직 한 가지 원칙만을 제시한다. “하느님께서는 결코 공정과 정의를 왜곡하지 않는 분이시다.”(욥 8,3). 그에 따르면 하느님은 정의에 있어 한 치의 오차가 없는 분이므로, 욥이 하느님께 자기 죄(설사 무의식적 죄라도)를 뉘우치고 겸손하게 숭복할 때라야 생명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다.²⁰⁾

어찌 보면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러 왔다가 욥의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게 도와준 사람들이다. 우리 삶의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자신의 도덕성에 자부심을 갖지만 그러한 태도가 부지불식간에 상대방에게, 그것도 역경 중에 있는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임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 바로 이 점이 고통 받는 이가 공동체 안에서 더 고통을 당하는 예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역설이 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냉혹하고 판단적인 언사로 불쌍한 이웃에게 상처를 가했음을 깨닫지 못하지만, 결국 욥이 자아의 중심

18) 가톨릭 구약성경 『욥기』에서 인용.

19) E. M. Good, *In Turns of Tempest: A Reading of Job, with a Translation* (Stanford, 1990), pp. 210-211.

20) N. C. Habel, *The Book of Job: A Commentary* (OTL; London, 1985), p. 116.

을 잡을 수 있게 촉진자 역할을 했다. 욥이 소외와 고통 속에서 역경을 회피하려 했다면 죽음의 병에 이르는 길로 접어들었을 테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하느님을 놓지 않았다. 이로써 우리가 보는 것은 역경 중에도 개인의 자아는 공동체의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또 공동체 눈치를 보는 구성원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뚝 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친구들이, 곧 공동체가 도와준 것이다.

Ⅲ. 역경과 성격의 재형성

1. 역경과 인간의 ‘온전성’

역경을 통해 욥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앞서 살폈듯이 욥의 독백과 탄식 그리고 그 사이에 친구들의 담화에서 볼 때, 욥은 산문과 마찬가지로 운문에서도 역경 이전에 온전한 사람이라 불렸던 것처럼 역경 중에도 여전히 온전하다. 왜 그러한가? 우선 그는 신앙인 그대로이다. 비록 그의 공동체에는 생소하겠지만, 역경 중에 그는 자기 고유의 신앙 체험을 하면서 살아 있는 신앙언어를 선포한다.

특히 성장이라는 점에서 욥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일별해볼 수 있다. 첫째, 그는 전보다 훨씬 감정에 솔직해졌다. 친구들은 욥이 전처럼 예의바르고 경건하게 조용히 고통을 감내하도록 압박하지만, 욥은 아프면 아프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외친다. 둘째, 그는 전보다 훨씬 더 자기 처지를 객관화할 줄 알게 된다. 보통,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모든 게 뒤죽박죽 돼버리는 혼돈에 빠져 정신력도 잃고 신앙심도 잃는 일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욥은 혼미함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자기 이성의 능력을 십분 발휘한다. 곧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왜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조목조목 따진다. 나중에는 그것이 헛일이 되었음을 깨닫게 될지라도, 바로 그러한 역동으로 인해, 그는 정신을 잃는 일 없이 점점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셋째, 욥은 하느님에 대해 상식으로 알던 데서 벗어나 하느님을 직접 뵈려는 체험을 갈망한다. 그래서 욥은 대담하게도 하느님과 일종의 법정 투쟁을 상상하며 하느님이 자기에게 와주길 갈망한다. 아마 이 점은 전과 다른 중요한 변화일 수 있다. 곧 욥이 좌절과 암울함 속에 갇혀 하느님을 전혀 모르는 자처럼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기보다(욥 3,11-19; 6,8-9; 7,15-16), 상상으로나마 하느님과 대결하는 일은 한 인간이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해 나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상상 속의 법정에서 욥은 비장하게도 원고(原告)가 되는데, 아무리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낄지라도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께 받은 자신의 존귀한 품위를 지켜내기 때문이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 동안에도, 그 마음은 점점 하느님께 직접 토로하는 방향으

로 읊어간다. 그렇다고 읊이 전처럼 고분고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다. 더 나아가 읊의 사고는 급진적으로 변화한다. 이는 읊이 사회현실을 매우 냉정하게 바라보는 21장의 다음 구절에서 엿볼 수 있다.

어떤 이는 혈기 넘치는 가운데 무척이나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죽어 가지.
 옆구리는 굳기름으로 가득하고 뺨골은 아직도 싱싱한 채 말일세.
 그러나 어떤 이는 영혼의 쓰라림 속에 죽어 가지.
 행복을 맛보지도 못한 채 말일세(읍 21,23-25).²¹⁾

우리는 종종 인과응보의 법칙이 전혀 통하지 않는 때를 경험한다. 읊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고에 도달하는데, 이제 그는 운명이나 보상에 희망을 걸지 않고 도리어 하느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개개인의 고유한 권리와 잠재력에 바탕을 둔 희망을 찾으려 한다. 이는 읊 개인으로서의 혁신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그동안 읊은 익숙한 환경, 곧 주어진 축복 안에서 자기를 보았다. 그러나 이유 없이 붙어 닳친 역경을 통하여 현재는 세상에 대한 더 넓은 조망 안에서 자기를 본다.

마지막 담론이 펼쳐지는 읊기 26-31장에서 더 이상 읊과 친구들의 논쟁담화는 없고 읊 혼자 말하는데, 여기에 그가 스스로 자신의 ‘온전성’을 주장하는 두 가지 선언이 들어 있다.

나의 권리를 박탈하신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내 영을 쓰라리게 하신 전능하신 분께서 살아 계시는 한
 나에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하느님의 숨이 내 코에 있는 한
 맹세코 내 입술은 허위를 말하지 않고
 내 혀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으리.
 나는 죽기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의 정당함을 움켜쥐고 놓지 않겠다(읍 27,2-6).²²⁾

그리고 다시 한 번 31장에서 읊은 자신의 ‘온전성’을 다음과 같이 변론하고 말을 끝맺는다.

내가 만일 거짓 속에 걸어왔고 남을 속이려고 내 발이 서둘렀다면
 그분께서 나를 바른 저울에 달아 보시라 하지.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아시게 될 것이다(31,1-6).²³⁾

21) 가톨릭 구약성경 『욥기』에서 인용.

22) 사역, 이명기, 앞의 책, 134, 136쪽에서 인용.

23) 사역, 이명기, 위의 책, 143쪽에서 인용.

욥이 이런 단언으로 자신의 전적인 무죄함과 윤리적 공적을 표시하려 한다면, 그는 아직 역경의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주님을 찬미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욥 1,21; 2,10)고 말하던 때로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욥은 지난(至難)한 여정을 통해 자신이 정금(正金) 같이 나올 것임을 확신하며, 이제 자신이 발한 신앙고백에 부합하는 걸음을 실제로 걸겠다는 말이다. 이러한 용기는 무슨 의미인가? 이는 욥이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평범한 인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안에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조건에 직면할 수 있는 신앙하는 자아로 성숙한다는 의미이다. 욥은 이것이, 오직 나이를 먹어가는 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역경, 곧 벌을 받는 듯한 시련을 통하여 가능성을 알게 된다. 우리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역경은 생의 더 깊은 곳으로, 곧 생의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이동해가는 통로이다. 그러므로 앞서 우리가 한 질문, “역경은 인간성숙을 위한 통과례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서, 우리가 욥기에서 보는 것은 저 끝에 뭐가 있을지, 삶의 끈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고통 받는 자들 안의 숨겨진 성격 곧 ‘온전성’이다.

2. 역경의 극복 후 펼쳐진 신비

욥의 믿음과 희망이 헛되지 않게 하느님은 폭풍 속에서 욥에게 나타난다. 그러나 하느님은 욥이 줄곧 자신의 ‘온전성’에 대해 시험받아왔음을 인정하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다. 도리어 하느님은 창조 사업에 관한 자신의 설계 내지 기획을 강조한다. 곧 땅, 바다, 하늘, 지하 세계, 그리고 우주의 다스림 등을 언급한 뒤 열 가지 종류의 야생 동물들을 언급한다(욥 38장 참조). 이런 총체적 그림 안에서 인간은 고작 우연히 나타나는 존재일 뿐이다. 무엇보다 역사 내에서 일어나는 하느님의 활동 계획이란 어떤 영역에서든 욥이라는 작은 인간의 한계만을 더욱 명백하게 가르쳐 줄뿐이다.²⁴⁾ 또한 “네가 나의 공의마저 깨뜨리려느냐? 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나를 단죄하려느냐?”(욥 40,8)는 질문은 “하느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다.”(코헬 5,1)고 한 코헬렛의 말대로 인간이 처해야 할 위치를 인식하게 한다. 욥은 하느님께서 친히 정의를 깨뜨렸다고 말했으니 하느님의 우주적 질서와 통치의 의미로서 공의를 부정한 셈이다. 하느님 말씀의 맥락에서 공의란 욥이 개인의 소송을 판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우주적 차원을 지닌 하느님의 주권으로 이해된다.

다른 한편, “하느님은 왜 인간 세상에 악을 허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기 하느님 말씀 뿐 아니라 성경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답변되지 않은 채 던져진 질문이다. 세상에 인간의 악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특히 하느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여전히 악인들이 지속적

24) J. Lévêque, “L’interprétation des discours de Yhwh (Job 38,1-42,6),” in Beuken, W. A. M. (ed.), *The Book of Job* (BETL 114; Leuven, 1994), pp. 209-210.

으로 현존하는 것을 읊는 시편에서 입증된다. 욥기의 주님 말씀에서는 악의 심판에 대한 기대는 없다. 다만 시편 96편과 98편에서처럼 하느님의 공의는 완전하게 실현될 것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주님 말씀에서는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였고 그 안에 질서를 세웠다고만 말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공의는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인간의 체계로서 정의와 심판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욥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느님 통치의 맥락에서 공의에 관해 듣는 것이라면, 그는 친구들이 요구한 대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거짓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느님의 통치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 주님의 공의는 심지어 바다, 브헤못, 레비아탄(욥 40,25-41,26) 등 혼돈의 대표적 상징들, 그리고 유비적으로 표현하여 인간의 악함까지 그대로 놓아둔다.

이는 무슨 뜻인가? 이는 혼란스럽고 위협적인 세력들과 정돈된 질서 사이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다스리는 그분의 권한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주님 말씀은 하나도 의심할 게 없다. 이는 욥이 용기 있게 자신을 헤아려보도록 인도한다.²⁵⁾ 곧 욥에게는 주님의 통치 계획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식별력이 결여되어 있다. 욥은 하느님의 정의문제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의 협소한 신학범주 속에 끼워 넣으려 한 노력이 하나님께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하느님의 ‘완전하심’의 일부이며 그분의 ‘완전한’ 계획과 목적 속에 위치할 뿐 그것의 궁극적 목적을 판단할 수 없다.²⁶⁾

따라서 폭풍 속에서 들려온 주님 말씀은 욥이 진정 있어야 할 인간의 자리가 어딘지 명백하게 알게 한다. 그래서 욥은 주님에게 압도되어 “손을 입에 갖다 댈 수밖에 없다.”(욥 40,4)고 말한다. 펼쳐진 신비 앞에서 허황한 말 대신 침묵함으로써 하느님을 향한 오만함은 하느님의 자유에 대한 예배로 변형된다. 하느님은 욥에게 말하는 동안 줄곧 다음과 같은 질문을 되풀이한다. “너는 무엇을 알고 있으며 또 어떻게 이해하였느냐?”(욥 38,5,18). 욥은 비로소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다.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는 어떤 생각도 불가능하지 않음을.”(욥 42,2). 사실 욥은 “나는 알고 있다.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심을!”(욥 19,25) 하고 신앙을 고백한 적이 있다. 이는 그가 어둠 속에서 푹푹히 한 말이다.

이렇듯 하느님의 다가옴은 욥이 하느님의 부재와 침묵에 관해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만든다. 마침내 욥은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잿더미에서 뉘우칩니다.”(욥 42,6)하며 참다운 회개를 한다. ‘티끌과 잿더미’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은유적 의미를 지닌다. 먼저 이는 처음에 욥이 몹쓸 질병으로 인해 마을에서 고립되어 쓰레기장에서 수모를 받으며 외롭게 지내던 그의 처지를 표상한다(욥 2,8-12) 그러나 지금은 하느님이 자신의 시야를 넓혀주었으므로 하느님 앞에 자신을 낮춤과 동시에 자신에게 맞갖은 인간 조건을 새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욥이 거부하는 것 곧 버리려

25) J. Lévêque, *Job: le livre et le message*, 김건태, 『욥기』 (서울: 가톨릭출판사, 1990), 125쪽.

26) D. Cox, *The Triumph of Impotence: Job and the Tradition of the Absurd* (Rome, 1978), pp. 143-144.

는 것은 인간 중심적 시각이다.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체험을 한 뒤에 하느님이 보인다. 욥에게 재산이나 식솔은 위에서 주어진 것이지 자신이 만들거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허무한가?(코헬 2,24-26 참조). 마라톤을 완주하듯 역경을 돌다보니, 자신이 출발한 시작점에 하느님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욥에게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인가? 욥은 생애 예상치 못한 반대의 일이 자신에게 일어남을 새롭게 체험하므로, 그만큼 하느님도 낯설고 새로운 분으로 느껴졌다. 그는 정녕 알 수 없는 하느님에게 그러나 자신이 만난 참 하느님에게 하느님이라 이름을 부르는 체험에 이른다.

3. 공동체 회복

욥기 산문의 맺음말(욥 42,8-17)은 욥과 친구들과 친지들이 화해하고, 재산과 가족 등 욥의 모든 것이 회복되며, 그가 공동체에 복귀하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이 욥기의 급진적인 행복한 결말에 관해 해석의 문제가 분분하지만²⁷⁾ 서론에서 밝혔듯이 욥기는 문학적 불균형과 욥의 성격의 불일치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독자로 하여금 둘 사이의 연결점을 찾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결말이 왜 욥의 성격변화와 관련되는지를 밝혀야 한다.

욥의 친구들은 하느님께 분부를 받고 자신들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희생 동물을 들고 욥에게 간다(욥 42,8). 욥이 수행하는 희생제사는 친구들을 위해 중재기도를 바치는 예배이다. 그동안 친구들은 욥에게 그 자신을 위해 탄식하도록 충고했으나, 지금은 욥이 그들을 위한 탄식자가 된다(42,9). 친구들은 욥의 말을 ‘바람’ 같이 여겼으나, 이제 욥의 기도는 ‘용서를 얻기 위한 말’이 된다. 그러므로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이 그의 착한 행실에 좌지우지됨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무상의 자비로 그가 완성에 이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²⁸⁾ 하느님은 욥을 안다. 욥은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됐다. 욥도 안다. 하느님이 더 이상 누구에게 벌을 줄 필요가 없음을. 욥은 달라졌다. 이는 하느님과 일치된 인간의 경지를 나타낸다.

욥이 고통 받을 때 그를 멀리하고 그에게 남이 되어 버렸던 친척들과 친구들도 찾아온다(욥 42,11). 그들의 위로와 위안은 늦었긴 해도, 욥이 소위 야수들과만 지내는 광야에 홀로 있지 않고 다시 문명사회로 복귀함을 말해준다.²⁹⁾ 욥은 친척과 친구들에 대한 마음 자세를 바꾼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귀기 쉬운 사람이다. 더 이상 범정 같은 데서 하느님을 도전하는 고립된 영웅의 모습이 아니다.

이와 같은 욥의 공동체 복귀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한다. 첫째, 새로운 윤리적 비

27) D. J. Harrington, *Why do we suffer?* (Wisconsin, 2000), p. 48.

28) R. N. Whybray, *Job* (Sheffield, 1998), p. 173.

29) W. P. Brown, 앞의 책, p. 114.

전이다. 앞서 우리는 욥이 역경 가운데 자신을 향해 기존의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판단하는 데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인간 삶의 윤리나 도덕을 모두 해체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 오면 욥의 삶에는 ‘자비와 연민’이라는 새 윤리가 형성됨을 볼 수 있다. 둘째,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다.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사회악을 본다. 그러나 동시에 공동선을 본다. 이는 양면적이다. 만약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본다면 그것은 악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카인의 경우처럼 당장에 겪는 고통 때문에 악에게 발목을 잡히는 꼴이 된다(창세 4장 참조). 공동체 악을 접할 때 저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기는 자기극복이 과제인 것이다. 셋째, 부정적 체험에 대한 비전이다. 부정적 체험은 지금까지 몰랐던,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가를 드러낸다. 곧 고통 받는 이를 향한 친구들의 충고를 통해, 겪어보지 않은 자의 헛소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 체험에 진입하고 나서야 자신이 누구인지 합리적 체계 안에서 보게 된다. 그리고 공동체는 자신으로 하여금 인간이 무엇인지 깨우치게 만드는 촉진자 내지 협력자임을 보게 된다.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것이 하느님과 일치한 존재로 재탄생한 인간의 온전한 성격이다.

IV. 인간은 무엇으로 역경을 극복하는가?

역경을 극복해가는 욥의 여정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걷는 여정이다. 성경지혜의 관점에서 이는 ‘지혜의 길’이다. 지혜의 세계에서 자아의 발달은 타자 곧 하느님과 부모, 친구 또는 원수, 현인 또는 바보 등 모든 이와 관계에서 이루어진다.³⁰⁾ 그러나 욥기가 잠언처럼 공동체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차별성을 지니는 것은 역경에 침묵하는 인간으로부터 역경 중에 쓰디쓴 불평을 토로하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서 비롯한다. 욥의 불평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전수되어온 탄식시편과 흡사하다.

1. 가난한 이의 울부짖음

구약성경 가운데 특히 탄식시편에는 하느님께 직접, 대담하게 호소하는 화자(話者)들의 열기로 가득하다. 어떤 화자는 하느님이 고통의 원인제공자라며 하느님을 원망한다(시편 44편 참조). 또 어떤 화자는 자신의 무고한 고통으로 하느님의 위엄과 영예가 의문에 처해졌음을 기억하라고 하느님께 요구하기도 한다(시편 13편 참조).³¹⁾ 이와 비슷하게 욥의

30) W. P. Brown, 앞의 책, pp. 114-151.

31) D. J. Harrington, 앞의 책, p. 3

탄식 역시 하느님의 임재와 그분의 일하는 방식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욱기 10장의 예를 들면, 욱은 “영혼의 쓰라림 속에서” 토로하며, 하느님을 소송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탄식을 가득 채운다. 그가 가장 신랄하게 탄식하는 골자는 하느님이 당신 피조물들을 자상하게 돌보셔야 함에도 몸소 그런 의무를 폐기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욱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갈망으로 하느님 창조에 관한 찬미가를 읊조린다.³²⁾

이런 방식의 기도는 심리적으로는, 고통 받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가장 밑바닥 감정에까지 닿게 한다. 인간의 고통은 철저히 사적이고 자기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작용한다. 혼자서만 아프고 아픈 자기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³³⁾ 사회적으로, 고통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의식하고 인정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동정하게 한다.³⁴⁾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고통 받는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통증을 느끼고, 다음과 같이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질문을 쏟아냄으로써 그 느낌을 밝히게 한다.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하느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느님은 왜 날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가? 나를 괴롭힌 저들은 왜 나보다 훨씬 더 승리감에 취해 있는가?”³⁵⁾

성경 속 인물들, 시편 시인들, 그리고 욱, 이들처럼 삶에서 탄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역경에 처했을 때 탄식을 통하여 울타리로 겹겹이 둘러 쳐져 있던 내면의 자아, 곧 낯선 자아를 만나기 때문이다. 욱 또한 탄식시편의 화자들처럼 깊은 탄식과 분노와 불평과 삶의 회의를 뱉어냄으로써 자신의 밑바닥을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인간은 탄식을 통하여 정화의 길을 간다. 속내를 뱉어내고 어둔 밤에 들어가고 또 뱉어내고 어둔 밤에 들어가길 반복하면서, 너무 깊어 어둡기만 한 우물 속에 두레박을 내려 겨우 한 바가지 물을 퍼내듯, 그렇게 역경은 극복으로 변형되어간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탄식, 울부짖음은 기도의 사다리가 되어왔다.

2. 고통의 신비로 초대됨

욕기는 삶의 역경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진리 내지 보이지 않는 신비에 근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험으로 본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역경에서조차 어떤 의미를 찾으려면 초월자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역경 자체가 초월자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경은 초월자를 부르고, 고통 받는 자의 눈이 초월자를 향하게 한다.³⁶⁾ 모든 사

32) J. E. Hartley, 앞의 책, pp. 165-166.

33) 손봉호, 「초월적 계기로서의 고통」, 『인간연구』3 (서울: 가톨릭대학교인간학연구소, 2002), 16쪽.

34) 손봉호, 위의 글, 17쪽.

35) D. J. Harrington, 앞의 책, p. 6.

36) 손봉호, 위의 글, 20쪽.

람이 다 이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비록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이를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해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역경을 만나면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반응한다. 이를 좀 더 전개해 본다면 역경을 회피하는 것은 곧 피난처를 찾는 일인데, 바로 거기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불신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루 아침에 하느님이 얼굴을 바꿔,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성 이냐시오는 이를 ‘고독’(영적 실망)이라 이름 붙인다.³⁷⁾ 그런데 이 어둔 밤은 자기 마음속에서도 길을 못 찾는 미로 속에 빠지는 것이다. 이로써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얻게 된다. 결국 인간은 퇴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욕기에 등장하는 반대자, 훼방꾼 사탄이 원하는 일이다. 그래서 역경이 역경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역경을 통해 고통의 신비로 초대되는데,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 하느님을 향한 신앙이다. 역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놓지 않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 성 이냐시오는 고독의 상태에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권한다.³⁸⁾ 욕이 보통 사람과 차이가 나는 것은, 그가 하느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을지언정 하느님을 놓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고통 받는 자가 신비로 초대받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느님이 거저 주는 은총이라 말할 수 있어도, 이 세상 삶에서 인간이 꼭 지녀야 할 유일한 의무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욕에게 배우게 된다.

탄식시편의 화자들과 욕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역경이라는 용광로를 거쳐 진정한 인간 곧 온전한 자아로 재탄생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재탄생의 근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향한 깊은 신뢰이다. 이 신뢰는 길고 긴 어둔 밤을 거쳐 체득된다는 것을 욕기를 통해 더 잘 보게 된다. 모름지기 인간의 길은 비록 예측 불허되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며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걸으면서 알게 되는 신비의 길이다.

3. 역경의 가치 필연성

이상과 같이 신앙 안에서 역경을 극복해나가는 욕과, 그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부지불식간에 그를 도운 욕의 공동체를 살필 때, 과연 역경은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욕은 삶의 역경을 유익한 것 내지 교훈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욕 3장; 16,6-17; 19,13-22 참조). 친구들 가운데 유독 엘리파즈가 역경이 있는 곳에 하느님의 은총도 있음을 말한다(욕 5,18 참조). 역경의 모습은 어떠한가? 역경은 인간의 신앙이나 윤리적 공적에 일말의 타협도 없이 한 개인을 광야에 내던진다. 욕의 경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의 신앙과 덕성이라는 외부보호막 안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내면의 어떤 작은 돌

37) M. R. Jurado, *El discernimiento espiritual*, 박일, 『영적 식별』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0), 300쪽.

38) M. R. Jurado, 위의 책, 302-306쪽 참조.

이 역경으로 인하여 여세를 몰아, 그동안 외적으로 쌓아올린 그의 감정과 태도와 성격 전반을 뒤흔든다.³⁹⁾ 그래서 욥은 혼돈 속에서 인간의 ‘온전성’을 상실한 듯 하느님께 반항하고 친구들 앞에서 신앙이 없는 자처럼 독설을 한다(욥 3장; 9장 참조). 욥 이야기를 아는 독자로서 우리는 고통 받는 자가 스스로는 볼 수 없는 그의 내면의 혁명적 위기를 본다. 그리고 욥의 역경의 크기를 그의 행실에 따라 부과된 징벌의 크기로 판단하는 친구들을 본다(욥 22,5-11). 그러나 이 둘을 번갈아 바라볼 때, 우리는 욥이 처한 역경의 그 크기가 친구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임을 발견한다. 곧 우리에게는 욥이 역경을 극복해나간 대단한 과정을 해석할 길이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경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삶의 일부로서 역경의 가치에 관해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도 있고, 영성적으로 해석할 길도 있다. 곧 과학적 측면에서 인간은 짐승들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부족한 점,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능과 같이 짐승들이 갖지 못한 강력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고에 비취볼 때, 역경은 인간이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⁴⁰⁾ 또한 위기(危機)에는 ‘위험’과 ‘기회’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다. 위험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관련되는데, 이런 공포에 휘둘리게 되면 안전한 피난처에 의존하며 퇴행하는 길로 빠지게 된다.⁴¹⁾ 하지만 기회로서 역경은 사람을 크게 성장시킨다. 때때로 역경으로 인해 신앙도 잃고 자아정체성도 잃는 경우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역경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역경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극복해나가는 개인의 영적 여정 안에서 신앙이 수반될 때, 곧 그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그분을 기필코 만나려는 노력을 할 때, 거기서 인간의 ‘온전성’이 빛을 발하게 됨을 보는 것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역경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삶의 역경이 인간으로 하여금 매번 성장의 발판이 됨을 확신함으로써 그것의 가치 필연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현장에서 역경에 시달리는 성인기 초기의 청년들을 대할 때 어떻게 역경의 가치에 관해 영성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할지 욥기에서 탐구해본 것이며, 이를 아래 결론 부분에서 종합하고자 한다.

V. 결론: 종합 및 역경의 영성교육적 전망

지금까지 글을 전개하면서 욥기 안에서 역경을 통한 개인의 성격변화와, 인간의 ‘온전

39) J. Gerald Janzen, *Job: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한미공동주석편집/번역위원회, 『욥기,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95쪽.

40) 손봉호, 앞의 글, 19쪽.

41) J. Z. Borysenko,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안진희,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비밀』 (서울: 이마고, 2011), 10쪽.

성'과 역경의 가치 필연성을 논한 결과, 다음 두 가지 요점으로 종합해볼 수 있다.

첫째, 신앙하는 인간의 '온전성'은 역경에 의해 짓눌리거나 파괴되지 않는다. 욥기는 두 가지 문제로 구성된 본문을 통해 양쪽에서 욥의 '온전성'을 강조한다. 산문에서는 인간의 '온전성'을 잘 다듬어진 인성교육과 윤리적 사회생활과 거룩한 종교신심과 일치시킨다. 운문에서는 역경 중의 인간이 공동체의 판단에 분노하고 저항하고 하느님을 반역하듯 그 분에게 맞서는 격한 성격을 나타내지만 끝까지 하느님을 놓지 않는 것과 일치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욥기는 독자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이면서 마침내 이 둘을 하느님의 자유로운 통치 내지 하느님의 섭리 안에 귀결시킨다. 곧 인간의 '온전성'은 자신의 올바른 선행으로 보상받는 것도, 피 흘린 싸움으로 쟁취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온전히 하느님의 무상의 선물로 인간 안에 이미 주어졌다. 그래서 영적인 잠에 의해 또는 인간중심적 기획에 사로잡혀 이를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다. 역경은 광포하지만 혼돈과 무질서를 도구로 인간을 흔들여 깨우고, 삶의 질서가 초토화된 기반에서 그에게 주어진 탄력성을 발휘하도록 몰아친다. 부지불식간에 역경을 극복하여 가는 이 힘을 내면에서 발견하게 될 때, 인간은 처음부터 자신 안에 심어진 영성의 씨앗 곧 '온전성'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역경을 통하여 인간의 기본성격이 변화하며,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중심을 잡게 하는 원리가 바로 인간 자아 안에 든 '온전성'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역경은 한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 영향을 주고받는 삶의 일부이다. 환자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 곧 공동체란 무엇인가? 욥기에서 그들은 아이러니이다. 환자가 불평하고 탄식하고 하느님의 정의를 의심할 때 그들의 위로는 박해로 돌변한다. 왜 그들은 환자가 걸어가는 길을 있는 그대로 동반할 수 없는가? 욥의 친구들도 욥처럼 노력하여 사는 데 자족하며 도덕적 삶 일변도로 추구했다. 이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삶이 지닌 전체성을 땅 바닥에 발 딛으며 걷듯 체화해가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욥의 처지를 이해하려들지 않았을 것이다. 달리 말해 그들은 욥을 이해하려들었기 때문에 역경 중의 인간이 쏟아내는 궤변 속의 반짝이는 진실을 들을 수 없었고, 그의 숨은 '온전성'을 볼 수 없었으며, 고통 받는 자와 길을 함께 걸어줄 수 없었다. 만약 그들이 역경이 자아내는 역설을 발견할 영적 훈련을 하였다면, 욥을 판단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힘이 없었으므로 자신들의 악만 드러낼 뿐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욥을 판단하며 구석으로 몰았기 때문에, 욥은 유일한 구원자 하느님을 찾아갈 수 있었다. 역경 중의 인간을 향한 그들의 위로는 그 반대의 일, 곧 악의 변호인 역할로 나타난다. 이것이 공동체가 한 개인의 역경 중에 그를 도와주는 촉진자로서 끼치는 영향력으로서, 역설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음을 욥기는 예리하게 보여준다.

이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해낸 역경에 관한 욥기의 영성교육적 전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경은 초대이다. 욥은 역경에 이르기 전에 충분히 하느님의 자비 안에 있었

다. 부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 순풍에 돛 달고 생의 여정 속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후덕한 삶을 산다. 곧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철저히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성교육자들은 특히, 어린나이의 피교육자들을 교육할 때 날마다 철저히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수련시켜야 한다. 역경 후의 인간은 어떠한가? 역경을 이겨낸 자는 영성이 더 커진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역경을 지탱하는 신앙심은 본래 하느님이 인간 안에 심어놓은 씨앗이기에 천성 안에 있는 것이고, 역경이 올 때마다 영성이 깊어진 사람을 의미한다. 둘째, 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이다. 영성의 그 깊이는 공동체 삶에서 드러난다. 역경을 통해 영적 성숙으로 나아간 사람, 그는 아무 말 없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와 같이 역경에 처한 이웃을 보게 될 때 어떤 판단도 보류할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이 판단보류 내지 정화된 성숙한 태도가 공동선이 된다. 모든 사람이 아무 역경 없이 잘 되지만 한다면 누가 어려움에 처한 인간을 견뎌줄 수 있겠는가? 자신의 역경과 위기를 견뎌내는 훈련 자체가 이웃의 역경과 위기를 함께 견뎌주는 열매로 맺어지는 것, 이것이 공동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셋째, 종교영성이 지향하는 것이 각 개인의 영성훈련이라면, 개인에게 역경이 올 때 이를 변화와 영적 성숙의 기회,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안내하는 일이 필요하다. 만약 개인이 이러한 차원을 알지 못한다면 또 영성교육에서 이를 알지 못한다면, 개인과 영성교육은 단순히 착한 사람, 종교인, 법 없이도 살 사람에 그치는 것이지 결코 예언적 삶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욕기 마지막에 욕이 이렇게 말한다.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지켰었습니다.”(욕 42,2-3).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가진 자가 아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 속함을 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역경을 통해 영적 성숙으로 나아간 사람은 고통 받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뭘 잘못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지?”라며 속으로 판단을 내리기보다 판단을 보류한 채, 그와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된다. 우리의 영성교육 내지 종교교육이 학생들에게 줄 희망은 이것이다. 우리가 겪는 역경은 우리를 찌그러트리거나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며,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다리가 되고, 우리를 그분의 사람이 되게 한다.

제언으로,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 삶의 가치변화를 위한 영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에서 인성과 영성교육을 통해 훈습이 되고 조금이나마 그 맛을 향유한 졸업생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일종의 계속양성에 참여할 영성 프로그램 제작을 희망하며 이 논문을 끝맺는다.

참고문헌

- 고요한, 「가르침과 배움에서 영성형성의 의미와 방법에 관한 교육인간학적 고찰」, 『교육철학 연구』 제33권, 제3호 (경기: 한국교육철학학회, 2011).
- 박요한 영식, 『고통은 왜』,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2002.
- 손봉호, 「초월적 계기로서의 고통」, 『인간연구』 3 (서울: 가톨릭대학교인간학연구소, 2002).
- 양유승, 「‘진리의 공동체’ 실현을 위한 영성교육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 이명기 「욥기의 *tāmām*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하정미, 최중화, 송영지, 「자살생각으로 고통 받는 사람의 영적 레질리언스 : 사회복지실천적 관점에서 욥기 내용분석」, 『교회사회사업』 제20호 (전북: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2012).
- Borysenko, J. Z., 안진희,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비밀』, 서울: 이마고, 2011.
- Crenshaw, J. L., 박 요한 영식, 『이스라엘의 교육』 서울: 성서와 함께, 2008.
- Gustavo G., 김수복·성찬성 『욥에 관하여 - 하느님 이야기와 무죄한 이들의 고통』, 대구: 분도출판사, 1996.
- Janzen, J. Gerald., 한미공동주석편집/번역위원회, 『욥기,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 Jurado, M. R., 박일, 『영적 식별』,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0.
- Lévêque, J., 김건태, 『욥기』, 서울: 가톨릭출판사, 1985.
- Martini, C. M., 안소근, 『약함의 힘, 시련의 때에 드리는 믿음의 응답 욥기 묵상』, 서울: 성서와 함께, 2013.
- Simian-Yofre, H., 박요한 영식, 『구약성서 연구 방법론』, 서울: 성서와 함께, 2000.
- Atkinson, D., *The Message of Job: Suffering and Grace*, BST; Illinois, 1991.
- Brown, W. P., *Character in Crisis: A fresh Approach to the Wisdom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 1996.
- Caesar, L. O., *Character in Job*, Ann Arbor, 1991.
- Clines, D. J. A., *Job 1-20* WBC 17; Dallas, 1989.
- Cox, D., *The Triumph of Impotence: Job and the Tradition of the Absurd*, Rome, 1978.
- Good, E. M., *Irony in the Old Testament*, Sheffield, 1981.
- Habel, N. C., *The Book of Job: A Commentary*, OTL; London, 1985.
- Harrington, D. J., *Why do we suffer?*, Wisconsin, 2000.
- Hartley, J. E., *The Book of Job*, Grand Rapids, 1988.
- Lévêque, J., “L’interprétation des discours de Yhwh (Job 38,1-42,6),” in Beuken, W. A. M. (ed.), *The Book of Job*, BETL 114; Leuven, 1994.
- Newsom, C. A., “Job,” in Newsom, C. A. - Ringe, S. H. (eds.), *The Women’s Bible Commentary*, Louisville, 1992.
- Rowley, H. H., *The Book of Job*, NCB; Grand Rapids, 1983.
- Scholnick, S. H., *Lawsuit Drama in the Book of Job*, diss., Brandeis, 1975.

Whybray, R. N., *Job*, Sheffield, 1998.

Zuckerman, B., *Job the Silent: A Study in Historical Counterpoint* New York, 1991.

〈성경〉

가톨릭 성경 『창세기』, 『욱기』, 『코헬렛』, 『잠언』, 『시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사전〉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 대사전』 중권, 서울: 두산동아, 1999.

Kedar-Kopfstein, B., “*tāmān*”, by Anderson G. W., Botterweck, G. J., Ringgren, H.,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vol. 8, W. Kohlhammer, 1990.

Koch, K., “*tāmān*”, by Jenni, E., Westermann, C., tr by, Biddle, E. M.,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Hendrickson, 1997.

원고접수일: 2015년 1월 20일 심사일: 2015년 2월 7일 게재확정일: 2015년 2월 12일

연구자소개: 이명기

① 전공: 구약성서신학 / 소속: 가톨릭대학교 ELP학부대학 인간학, 영성 교육전담교수

② 관심영역: 구약성경 지혜문학, 인간학, 영성교육

③ 주요논저: 「욥에게 배우는 온전함의 지혜」, 「욥기 42,7-8 연구」, 「성경의 세계에서 본 생명」, 「구약성경에서 창조물의 신비」 등

④ E-mail: mkrscj@hanmail.net

Abstract

Perspectives on Spiritual Education of Adversity based on the Book of Job: Human Integrity and Necessary Value of Adversity

Lee, Myoungki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perspectives on spiritual education of adversity based on the book of Job. The insights gathered from studying the relation between an individual's personality changes due to adversity and human integrity are as follows: First, human integrity is not necessarily destroyed due to adversity. Second, adversity is part of life, and not only the individual but also the entire community experiences its impact. Thus, the following three observations can be made with regard to the necessary value of adversity in educational perspective.

First, adversity is an invitation. Faith that sustains a person in adversity is a seed originally planted by God in human nature, and human spirituality is deepened whenever adversity is endured. Accordingly, when an educator in spirituality or religion classes meets younger students, he/she is to foster spiritual discipline of regular and constant prayer, the sense of gratitude for life and love of God, and the importance of living in community. Second, the formation of community is important. Depth of spirituality is evident in community life. An individual's withstanding of adversity with discipline in crisis is a common good that bears fruit and has impact on others in the community. Third, since the aim of religious and spiritual education is to train and foster an individual's spiritual discipline, it is important to direct and guide a person in adversity to face it as an opportunity for changes and spiritual maturity so that he/she may go over to a new world. Our hope is that this spiritual education is given to students: adversity we face does not necessarily crush us or lead to death. It may lead us to know ourselves, and become a stepping stone for meeting the living God and making us His people.

Key words: Integrity, necessary value of adversity, faith, spiritual education, endurance, community